

야생·문명 조화 혼종의 경지 “삶의 양식 확장”

야생동물과 인간, 인공물의 이미지를 한 데 등장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성찰하고 현대인이 있고 있는 본성(자연)을 일깨우는 작업을 꾸준히 펼쳐온 한국화가 허진 교수(전남대 미술학과)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를 기념해 여는 전시를 마련한다. 그의 대학에서의 교수로서 마지막 학기는 을 가을학기다. 가을학기를 끝으로 내년 2월이면 교단을 떠나게 된다. 그동안 교육자로서의 삶과 화가로서의 삶을 조망할 정년퇴임 기념전은 제40회 개인전이기도 하다. 전시는 지난 19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내 세종뮤지엄갤러리 1·2관에서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100호 기준 50여점.

그가 그려내는 세계에서 실루엣으로 표현된 인간과 섬세하게 묘사된 동물, 그리고 의의성을 안은 채 등장하는 인공 사물은 미묘하게 공존하는 한편, 작업이 쌓여가면서 그의 화풍은 야생과 문명이 질서와 혼돈 속에 조화를 이룬, 특별한 영토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다.

이번 연장전상에 작가의 작업 전반을 집할 수 있을 이번 전시의 주제인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초등학교 때 본 영화제목을 차용한 것으로 말처럼 힘차게 삶과 회화라고 하는 레이스를 달려온 것을 빗댄다. 그는 자칭 영화광이다. 그가 본 영화만 수백편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이 전시 주제를 결정한 계기가 된 듯하다.

그의 화풍에는 검은색 인간 형상들과 어우러진 동물들이 화폭 위를 유영하고, 은색 빛깔이 처진 빛나는 몸으로 화면을 질러가는 동물들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1991년부터 제작해온 전담 퇴직을 앞두고 그간의 화업을 돌아보는 ‘정년퇴직 기념전’이지만 시기별로 전작을 보여주는 전시는 아니다. 그가 “교수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인간 허진으로 돌아가는 전시”라고 이미 밝혔듯 교수직에서만 퇴직할 뿐 작업실에서 퇴직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그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간 삶의

허진 교수 퇴임 기념전 30일까지 세종뮤지엄갤러리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주제…100호 기준 50여점
2개층에 신작·회고전 구성…‘유전’ 연작 감상 기회



허진 교수

둘레에 처진 울타리를 그림으로 뛰어넘었듯이, 말처럼 허들을 뛰어넘겠다는 야심이 이번 전시 제목에 농축돼 있다.

전시공간은 총 300여평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주로 신작을 배치하고, 지하 2층에는 회고전 형식으로 꾸몄다. 전시작의 한 축은 최근작이고 한 축은 전에 공개하지 않은 ‘유전’ 시리즈들이 소개된다. 단체전에서는 더러 선보였지만 그동안의 40회 개인전을 맞는 동안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다. ‘목시’에서 더 나아간 ‘유전’은 지금 우리에게 과거는 무엇이고, 역사는 현재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를 모색한 작품들이다.

역사를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자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싶은 속내가 내비쳤다. 이 작품 역시 영화와 연관돼 있다. ‘인생유전’이라는 영화에서 명제를 차용했다.

바위가 다람쥐 햇바위 둘둘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인간은 개별적 삶이 극명하게 펼쳐진다. 이에 반해 바위는 서로 모나지 않고 똑같이 함께 굴러간다는데서 회화적 의미를 던지고 있다.

작가와 함께 전시 기획에 나선 이근정 기획자는 “작가는 배짱의 작가다. 그의 상상력은 사실상 전복의 상상력이다. ‘동물’ 시리즈의 경우, 그동안 작품 해석이 ‘생태보전’ 쪽에 치우쳐 있었다. 허진은 이중(異種)이 경계 없이 어우러진 혼종(混種)의 경지를 묘사한다. 중심과 주변이 뒤집



‘유전’ (流轉) 시리즈

어저 삶의 양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작가는 대학교수 부임 무렵 꽤나 주목받던 작가였다. 1988년 동송동 소재 문예진흥원 미술화관(현 아크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목시’를 열 당시, 그는 단번에 주목받는 청년작가로 떠올랐다.

한지와 수목채색이라는 전통 재료에 여러 화면을 골라주려는 기법을 결합한 그의 그림들은 그전까지 동양화 화단에서 보지 못한 기운을 뿜어냈고, 근대 이전과 이후의 인물들이 포호하는 듯 뒤섞인 모습과 어딘 발목이 자아내는 정념은 강렬하면서 대법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첫 개인전에서 큰 배포를 열어 보인 젊은 작가는 배경 또한 화려하다.

그의 조부는 호남 전통 화파의 상징적

고봉으로 일컬어지는 남농 허견(1908~1987)이며, 고조부는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서화를 수업하고 남종화풍을 토착화한 소치 허련(1808~1893)이다. 이처럼 탄탄한 화맥의 흐름 속에서 거침없는 청년작가가 나온 것이다.

이후 허진은 자신의 관심 주제를 계속 확장해 나갔다. 전통 재료에 골라주 기법을 결합한 초기 작업 ‘목시’, ‘환’ (環), ‘유전’ (流轉)이 당대 사회가 풀지 못한 한국 근현대사의 강박을 파편적 화면으로 펼쳐보인 것이라면, ‘다중인간’은 인간에게 부여된 신체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묘사한다.

성장 가도를 달리다 구제금융 국면으로 추락한 1990년대를 묘사한 ‘현대인의 초상’, 아우라가 빠져나간 환경 속에 낯선 물



‘유목동물·인간·문명’

상들과 얹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익명인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의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번 그는 2010년대 들어 화폭에 동물들을 큼직하게 끌어오기 시작한다. 그전까지 그의 화면을 지배하던 인간은 검은 실루엣으로 흩어져 배열되고, 포유동물의 형상이 자연과 문명의 조각들 위로 거침없이 부상한다. ‘유목동물’과 ‘이중융합동물’ 연작에서 드러나는 화면은 그만의 생태지형도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이를 두고 이주희 미술평론가는 “각종 생명이 깃든 것들이 가득 들어차 생기를 발하는 화면에서는 화재와 화풍의 재도를 예측하기 힘든 작가의 야성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작가의 야성적 화의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고 초자연적 현상을 환유하

며 자유에 다가가고자 했던 미술적 리얼리티 증폭도 성격을 함께 한다”고 언급했다.

허진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제39회 개인전과 서울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내외의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제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1989)에 뽑혔고,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우수상(1995)과 문화예술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1)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금호미술관, 한국일보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교토 노무라미술관 등에 두루 소장돼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빠르게 소비되는 사회 속 흔들리는 존재의 조건 질문”

광주리아트센터 기획초대 최재영 작가 개인전

인간 존재·정체성 탐구 9월 2일까지 23점 선봬

광주예술의거리에 작업실을 두고 오랜 기간 활동을 펼쳐온 최재영 작가의 개인전이 리아트센터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돼 지난 10일 개막, 9월 2일까지 ‘존재의 형상’(The Forms of Existenc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출품작은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약한 대작 위주의 총 23점.

서른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중반 영국 유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최 작가가 지속해온 인간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회화적 탐구를 집약하는 자리로, 먹과 칼을 이용한 초기 스크래치 작업에서 2019년 이후 심화된 연작, 그리고 2025년부터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골판지 폴라주까지 서로 다른 시간과 재료를 관통해온 작가의 조형적 궤적을 한자어에서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 인체와 얼굴이 중첩되고 확장되는 대형 화면들은 각각의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인간 군상처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먹과 칼을 이용한 스크래치 작업과 골판지 폴라주 신작이 한 공간에서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재료와 제작 방식이 만들어내는 화면의 밀도와 물성의 차

이를 보여주는 한편, 골판지를 자르고 배열하며 붙이는 과정을 통해 선을 구축하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그의 작업에서 ‘선’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화면에서 얼굴과 신체는 하나의 완결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신, 하나의 얼굴 안에서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나고, 신체는 서로 중첩되고 분절되며 다시 연결된다. 이같은 그의 조형언어는 1990년대 중반 영국 유학 시절, 자신의 담당 교수가 서구 회화의 형식을 반복하기보다는 동양 회화의 전통과 한국적인 재료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것을 권유한 뒤 이를 계기로 작가는 캔버스와 유화물감에서 벗어나 두꺼운 종이와 먹을 선택한 것이다.

검은 먹으로 뒤덮인 화면을 날카로운 칼로 수없이 긁어내자 먹 아래에서 흰 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선들은 마치 상처처럼 화면에 남았고, 반복되는 굵기의 행위를 통해 어둠 속에서 인간의 얼굴과 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또 ‘Embrace’와 ‘Human Relationship’ 연작에서 수많은 인간의 신체는 마치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고, 작품 ‘Human Forest’(2026)와



‘Human (인간-06)’

‘Human Being’(2025)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러 방향의 선으로 분절되고 다시 결합한다.

미술생태연구소 백종욱 소장 역시 이번 전시 평문에서 스크래치 연작과 골

판지 연작이 재료와 형식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스크래치의 선이 골판지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내 유일의 서아시아 권역 영화제에 오세요

‘제15회 아랍영화제’ 28~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

국내 유일의 서아시아 권역 영화제인 ‘제15회 아랍영화제’(Arab Film Festival)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 극장3에서 열린다.

이번 아랍영화제는 (사)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ACC와 아랍영화제 사무국이 공동 주관하며, 외교부와 주한 아랍외교단에서 후원한다. 아랍영화제는 한국과 서아시아 문화교류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 후 광주 ACC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같은 시간 다른 사람, 다른 시간 같은 사람’(Same Time, Different People, Different Time, Same People)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 수단, 튀니지 등 아랍 10개국에서 제작돼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최신작 5편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오는 28일 상영되는 개막작 ‘히즈라’(Hijra)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사하드 아민 감독의 신작으로,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상영 이후 세계 평단의 찬사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목화의 여왕’(Cotton Queen)과 ‘힌드의 목소리’(The Voice of Hind Rajab)를, 30일에는 ‘싱크: 가라앉다’(Sink)와 ‘해피 버스데이’(Happy Birthday)를 차례로 만나볼 수



‘힌드의 목소리’의 한 컷

있다.

올해 광주 상영에서는 영화 관람에 앞서 아랍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네 토크’ 시간이 주어진다. 총 3회 진행되는 ‘시네 토크’는 배우 남기형과 황병하 명예교수(조선대 글로벌인문대학)가 함께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영화제에서는 혼란과 갈등 속 아랍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또 다른 인간애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스크린을 통해 아랍 세계의 다층적인 삶과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화 관람은 19~29일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한 사전 신청 또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601-4251.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